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영어 오페라 '피노키오' 연습 현장을 가다

“영어 노래·안무 완성 하루해가 짧아요”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다음달 2~3일 총 3회 공연
초교 4년~고교 1년 단원 53명
주 4회 모여 가창·춤 등 맹연습



지난 24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 모인 학생들이 손 동작을 활용한 안무를 연습하고 있다.

코가 길어진 인형 피노키오가 아버지 제페토를 만나 인간이 되는 이야기... 어렸을 적 동화책에서 읽어본 익숙한 피노키오 이야기가 영어오페라로 펼쳐진다. 재잘대던 어린 시절의 내가 읽었던 동화는 그 시절 아이의 목소리가 돼 노래로 울려 퍼졌다.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찾은 광주시립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영어오페라 '피노키오' 연습이 한창이라 문밖으로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중간중간 장난스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첫 영어오페라 '피노키오'는 작곡가 발티노니의 한국 초연극으로 목수 제페토의 소원으로 생명을 얻은 나무인형 피노키오가 철 없이 서커스단에 현혹돼 험난한 모험을 한 뒤 제페토와 재회해 결국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출에 안진성, 피노키오 역에 김재이, 조안나, 제페토 역에 공병우 등이 함께한다.

총 53명의 합창단원은 올해 8월 '피노키오' 작품 연습에 돌입했다. 일주일에 4번, 다같이 연습실에 모여 영어가사 습득과 음역대별 가창 연습, 춤 연습과 동선 맞추기를 병행하고 있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늦은 시간의 연습에도 아이들은 힘든 기색 없이 함께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은 며칠 뒤면 올라설 커다란 무대를 상상하며 목소리 높여 노래했다.

아이들은 20분간의 쉬는 시간을 알리는 지휘자의 말이 끝나자 여느 10대 초등학생

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연습에 임하는 진지했던 눈빛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떠들고 웃는 제 나이에 학생의 웃음으로 흐드러졌고 간식으로 받은 빵과 음료를 바퀴막기도 했다. 쉬는 시간임에도 지휘자, 소프라노에게 달려가 궁금했던 걸 묻고 전 시간에 배운 안무를 홀로 연습해 보는 단원들도 있었다.

다시 연습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장난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어엿한 합창단원'이 돼 있었다. 이들은 능숙하게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세개 음역대로 나눠 섰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가 흘러내리면 코를 잡아 올리기를 반복하고 입김이 펠러는 마스크를 연신 고정시키면서도 맡은 음역대를 놓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합창단원 김도은(12)양은 “평소 영어를

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서 합창단에 영어오페라를 한다고 했을 때 마냥 어렵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막상 시작하니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자신감도 생겨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지윤(11)양은 “새로운 영어 노래를 배우야 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엄마가 미국에서 파는 영어책까지 사다주시며 응원해 주셔서 힘이었다. 이번 무대를 계기로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연의 무대는 아치형으로, 단원들이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로 하여금 한편의 동화책을 펼쳐본 것과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무대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곡 '크릭크릭'의 안무는 올해 8월 워크숍 당시 안무가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더욱 의미가 있다. 자막 역시 무대 밖이 아닌 무대 안쪽으로 배치하는 시도를 거

들했다. 또 관람 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대폭 낮춘 온 가족이 음악과 무대 장면을 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오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인공 피노키오 역할을 성인이 맡은데 대해 예술감독이자 지휘를 맡은 박주현 지휘자는 “작곡가 발티노니가 시도한 음역대는 애초 성인을 모티브 삼은 음역대로 아이들에게 무리가 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정했다”면서 “동화 속 주인공은 피노키오지만 무대의 주인공은 귀뚜라미와 병정, 여우가 돼 공연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오페라 '피노키오'는 12월 2일과 3일(2일 오후 7시 30분, 3일 오후 3시, 오후 7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발레단과 협연하며 광주여성합창 모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는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추위 녹이는 피아노 선율

피아노모 연주회... 다음달 3일 금호아트홀

피아노모의 41번째 연주회가 12월 3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오후 3시 열린다.

무대에는 한국피아노학회 전국 부회장이자 피아노모 회장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주영을 비롯해 독일 하노버 음대를 졸업하고 한국피아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임호열, 이화여대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박사 졸업한 박안나 등 총 25명의 피아노모 단원들이 함께하며 앙상블 다오엘의 단원인 아코디오니스트 김소미씨가 함께한다.

이날 무대에는 글리에르, 드보르작, 인판테 등의 작곡가 곡 12개를 올린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번호 72'를 정세화와 이담이가 연주하고 임호열과 이주영, 박안나와 허자현이 빌베그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을 선보인다. 이어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를 임리라와 한승희가, 가르델 '포르우나 카베사'를 김민희와 최안수, 이현주, 김여진이 무대에 올린다. 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과 겨울'을 강서정과 이주영이 연주하고 아코디오니스트 김소미가 협연하며 마무리한다.

지난 2010년 창단된 피아노모는 매년 광주와 서울 등에서 테마가 있는 연주를 펼치며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다.

전석 초대. 010-6331-6834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이주영

임호열

박상희 동화작가 동시집 발간

'기웃기웃 보름달' 펴내

동화 '아빠와 함께 떠나는 나주여행'의 박상희 동화작가가 동시집 '기웃기웃 보름달' (가문비 어린이)을 펴냈다.

'기웃기웃 보름달'이라는 동시집 제목부터 이색적이다. 보름달하면 대부분 동그랗고 노란 달을 연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시인은 보름달 모양에 조금을 맞추지 않고 움푹입어 시선을 둔다.

시인은 추석날 오남매가 둘러 앉아 송편을 빚던 장면을 모티브로 시를 쓴 것이다. 달님이 하늘에 떠올라 집 안의 풍경을 기웃거리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박 작가는 달님은 사람이 사는 마을을 기웃기웃 살피면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작가가 되고 싶었던 옛날 가졌던 꿈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인다.

해설을 쓴 이상자 동화작가는 “작품집 속에 있는 동시를 읽어가는데 동안 친구들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이동하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자연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며 “시편마다 잘 보이려고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았다. 그냥 보고 느낀 대로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지”라고 한번쯤 읽기를 권유한다.

한편 박상희 작가는 광주대 문창과를 졸업했으며 영남문학상 동화 부문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다. 목포문학상 동화 부문 수상했으며 '이모티콘 할아버지', '바스락바스락 후드풍' 등의 작품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천서 '김승옥문학상' 시상식

다음달 2일... 대상 편혜영 소설가

김승옥문학연구회와 문학동네, 순천시 주최하는 2022 김승옥문학상 시상식이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2층)에서 열린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인 편혜영(작가) 소설가에게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

다. 수상작은 '포도밭 묘지'.

심사위원들은 대상 작품에 대해 “정확한 디테일, 적절한 상징, 공감어린 시선, 깊은 여운이 어우러져 있는 이 소설은 우리가 편혜영이라는 작가에게 경탄하게 될 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놀라게 알려준다”고 평했다.

우수상에는 구병모(니니코리치우폰타), 김

연수(진주의 결말), 김애란(홍 파티), 정현아(일시적인 일탈), 문지혁(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백수린(아주 환한 날들)이 선정됐다.

한편 편혜영 작가는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지금까지 소설집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과 장편소설 '재와 빨강', '홀' 등을 펴냈다. 한국일보 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